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취로 1614(상림동 60)

2025년 4월 22일(화) 제 3081호

이재명 경선·여론조사 압도적 선두

선택 6.3 대선

당내 득표율 90% 육박
여론조사서 50.2% 기록
적합도·당내 지지율 1위
23~26일 호남大戰 결판

기대되는 호남 대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대전(23~26일)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사실상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박찬대 의원 X>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50%를 넘게 나왔다.

2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같은 기간 1.3%포인트 오른 12.2%로 2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 8.5%,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7.5%,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4.0%,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5%, 김동연 민주당 후보 2.0%, 김경수 민주당 후보 1.8% 순이다.

또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후보 53.4%, 김동연 후보 17.3%, 김경수 후보 5.7%였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82.9%, 김동연 후보 5.5%, 김경수 후보 3.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김문수 후보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후보 12.4%, 안철수 후보 9.6%, 나경원 후보 6.4%, 유정복 후보 2.3%, 양향자 후보 2.2%, 이철우 후보 1.1% 등의 순이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김문수 후보 27.8%, 한동훈 후보 19.8%, 홍준표 후보 17.9%, 나경원 후보 10.2%, 안철수 후보 7.7%, 유정복 후보 1.7%, 이철우 후보 0.6%, 양향자 후보 0.5% 등의 순이다.

이와함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3자 가상대결에 대해선 각각 54.2%, 23.6%, 6.1%지지 였고, 없음은 11.7%, 잘 모름은 4.4%다.

또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준석 후보가 대선 3자 가상대결을 하면 각각 54.6%, 16.2%, 5.4%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7%, 국민의힘 32.9%로 나왔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0%p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충청권과 영남권 집계결과 이재명 후보가 89.56%,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로 나왔다. 호남권(23~26일) 경선 결과가 반영된다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추경 확보 '총력전'
5개 핵심사업 300억 반영

추경 대응 사업 17건 발굴
AI 전환·군산항 등 핵심사업
국회 제출 앞두고 국회 공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전북 지역 핵심사업 5건을 토대로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김 지사는 21일, 국회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북 미래산업 도약을 이루기 위해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총 12.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는 최근 불어닥친 전국 최악의 산불 피해와 통상 및 AI 지원, 내수 회복 지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AI 지원,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17건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시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지사는 △지역 AX(인공지능 변환) 활성화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 △군산항 유지준설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3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 AI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산업 AI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경북 초광역 지역 AX 활성화 사업(30억 원)과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30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 군산항 유지 준설 위한 82억 원 증액,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27개 농가 축사매입 위한 85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 용역비 5억 원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군산항 토사 퇴적으로 인한 대형선박 입항 기피 문제와 창업인프라 조성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농생명,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AI 신뢰성 실증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의 최적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AI 신뢰성 분야 국가 차원 선제적 대응 거점을 전북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대학 '고등교육 규제특례' 학사 탄력

교육부, 4곳 신규 지정
각종 규제 6년간 면제·완화
학사제도·대학경영 특례

글로컬대학을 운영 중인 전북이 고등교육 혁신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전북, 부산, 대구·경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

우선 학사제도와 관련해선 원광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등 도립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은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분야에선 산학협력단 해산시 잔여재산 등은 학교법인으로 귀속되던 법이 동일 학교법인 내 대학 통합시 통합되는 대학으로 산학협력단 잔여재산 등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김광종 무소속 대선출마 선언

아리랑당 창당 추진위 대표
"국채 300조 발행 국민 구제"

김광종 대표

김광종(63) 아리랑당 창당 추진위원회 대표가 21일 무소속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대표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선출마를 밝히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내일의 제국주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 서울대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베다니학교 교장과 우석대 기획부처장을 역임하고 제20대 강남구을 국회의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 2023 재보궐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대선출마 공약으로 △대통령 당선 후 전 국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2,000만명 국채 300조 발행 구제 △미성년자 1인당(인원 제한 없음) 100만원 지급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 1인당 100만원 지급 △현행 성매매 특별법 폐지 탈 성매매 여성지원 신규 법 제정 △현행 새 출발 기금, 신속 채무조정, 회생 파산 정책 재정비 등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악질 범죄자에게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도 말하며 목표 득표 수를 0.05프로로 예상했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전주상의, 한인비즈니스대회서 경제 외교 행보

전북 기업 글로벌 진출 미주 상공인 교류 지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KBC)'에 참가해 전북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에 활발한 경제외교 행보를 펼쳤다.

경제외교 행보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Gas South Convention Center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 한인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협력'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 네트워크 행사이다.

이 자리에는 20여 개국 2,0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김정태 회장은 현지 시각 18일, 대회에 참가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15개 기업 부스를 직접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전북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전주상공회의소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열린 전북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 수출 애로사항과 해외 판로 개척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 초청 행사에도 참석해 미주지역 한인 상공인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 간 경제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지난 19일 Magnolia Hall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네트워킹 환영 만찬'에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김정태 회장이 대한상의 부회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002년 제1차 한상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제23차 대회를 애틀란타에서까지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인 한 분 한 분이 한국경제 외연을 넓히는 대사이자, 글로벌 경제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주역이다"고 강조했다.

전주상공회의소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전북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에 활발한 경제외교 행보를 펼쳤다. <사진=전북자치도>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상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美 조지아州 '맷 리브스' 하원의원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고, 국내외 경제인, 韓·美 주요 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네트워킹의 장을 함께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 추진

콘텐츠진흥원 주관공모 선정 3억 규모 교육멘토링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공모에서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웹툰 교육 인프라 갖춘 플랫폼 기관에 국비를 지원해 우수한 웹툰작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전북 웹툰캠퍼스를 운영하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운영을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자치도는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도비 1억 5,000만 원을 매칭해 총 3억 원 투입, 웹툰 (예비)작가 10명을 선발하고 도제식 맞춤형 멘토링, 전문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5월 중 진행되고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는 작가들의 데뷔 및 연재 연계를 웹툰 '제작자(PD) 및 기획사'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전북자치도는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12명의 멘티를 양성하고 12건의 작품 제작을 지원했다.

도는 이로 인해 총 672시간의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해 예비작가들의 웹툰 창작 역량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협력해 전북웹툰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34명의 웹툰 작가 배출과 이 중 8명은 주요 웹툰 플랫폼에 연재 중이며, 21건의 작품이 웹툰 공모전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북 지역과 문화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전, ESG 웹툰 제작, 웹툰 페어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전북 웹툰 산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국민의힘 '100% 국민 여론조사' 4명 압축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진출 예상 22일 오후 7시께 발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선 경선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총 5개 여론조사 기관이 21일부터 22일까지 총 4000명의 샘플(표본)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가 끝나면 이를 합산한 결과를 황우여 선관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다"며 "합산에는 각 후보자들의 대리인이 참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이 여론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오후 7시께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2차 경선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의 의견이 반영된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정계의 분석에 따르면 경선 진출자 4명 중 (가나다순)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우선 진출하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 중 4위가 결정될 것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

윤준병 의원 "온실가스감축 예·결산제도 도입 해야"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중앙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등에 따라 국가예산에 대해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에만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지난 2023년 예산안부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정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정부도 대응의 한 주체로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행정안전부 등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초기 결과를 분석해 지방정부에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이제 시행 3년이 넘어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전북도, 지구의 날 맞이 14개 시·군 청사 소등행사

기후변화주간 운영 사진전·생활밀착형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기후변화주간'은 도민과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도의 올해 기후변화주간 슬로건은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도는 슬로건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적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주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사회 전반 행동 전환을 유도하는 실천형 캠페인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북도청 포함한 14개 시군 청사 건물의 소등행사가 일제히 진행된다.

또 전주기상지청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사진전' 21일부터 25일까지 도청 1층 전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현실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전북도청 직원들은 오는 25일, 구내식당에서 저탄소 식단을 함께 즐기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한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이 일상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행동에 도민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14개 시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전북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2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6주간 이어지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이 중점적인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적발시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향후 조치사항 이행 실태 확인과 함께 해당 시설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이남숙 전주시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치료 조례안 통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 조례안은 인터넷 게임과 음주, 흡연, 도박, 마약류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남숙 의원은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호랑가시나무, 전주 완산칠봉 등 다량 자생

기후변화·도시열섬화로 난대성 수종 생태 변화
전주까지 북상 의미 커
한승우 전주시의원, 조사

한승우 의원

그동안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와 섬지역에 주로 자생하던 상록활엽수종인 호랑가시나무가 전북자치도 전주시 일원의 산림인 완산칠봉 등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서 부안군과 군산시 어청도 등이 북방한계선구역에서 주로 자생하던 호랑가시나무가 내륙인 전주시 완산칠봉 등에서 사계절 생육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현상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일 환경운동가 출신인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전주시 완산칠봉 (해발184.2m)에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매우 폭넓고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2024년 4월부터 1년여간 관찰한 결과, 전주시 완산칠봉에 생육하는 호랑가시나무는 1~2년생부터 20여년간 자란 것으로 보이는 나무까지 100여 개체가 완산칠봉 전역에서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 등에서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난대성 상록활엽수인 구골나무와 꽝꽝나무, 식나무, 광나무 등도 매우 안정적으로 전주 완산칠봉에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전주시 완산칠봉에서 일시적 또는 인위적으로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한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화 현상으로 자생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9년 우리나라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 호랑가시나무의 경우 군산의 어청도 등 주로 섬과 전라남도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내륙의 경우 광 주광역시를 북방한계선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 한 의원의 조사결과로 호랑가시나무의 북방한계선이 내륙에서 전주시까지 북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랑가시나무뿐만이 아니라 구골나무, 꽝꽝나무, 식나무, 광나무 등 난대성 수종이 기후변화와 도시열섬 현상으로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 의원이 기상청 관측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의 기후 변화는 1920년대(1920~29) 평균기온이 11.93℃에서 2010년대(2010~19)에 13.77℃로 평균기온이 약 1.8℃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남부 해안가와 섬지역에 주로 자생하던 상록활엽수종인 호랑가시나무가 전북자치도 전주시 일원의 산림인 완산칠봉 등에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난대성 수종의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겨울철 최저기온의 경우 1920년대 1월 평균기온이 -1.75℃에서 2000년대(2000~09) 들어 +0.39℃로 약 2℃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주시의 1월 평균기온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0℃ 이상으로 상승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전주 완산칠봉에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가 생육하는 것은 전주시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이 2℃ 이상 올라가면서 발생한 자연생태계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랑가시나무 가 전주의 모악산에서는 생육이 확인되지 않아서 전주 완산칠봉과 화산공원에 호랑가시나무가 생육하는 것은 지구적인 기후변화보다 도시열섬화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식생 변화가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도시열섬현상에 따른 국지적인 변화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호랑가시나무 등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 방한계선이 전주까지 북상했음을 처음 확인했고,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자연생태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내버스 타고 이팝나무 축제 즐긴다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축제장 경유 노선 운행

평소 출입이 통제되는 전주시 팔복동 철길이 새하얀 이팝나무꽃 개화기를 맞춰 전면 개방된다. 또 전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곳을 오가는 전주시내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2025 전주 이팝나무 축제'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내버스를 집중 운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봄철 흩날리는 새하얀 이팝나무를 즐기기 위해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축제장을 경유하는 전주시내버스 노선은 △101번 △103-1번 △103-2번 △337번 △383번 △385번 △401번 △402번 △403번 △420번 △644번 △684번 △1001번 △1002번 등으로, 팔복예술공장과 기지제교,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팔복동 행정복지센터 등 축제 인근 정류장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또한 전주시는 '하얀 꽃비 속으로, 시내버스로 편리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도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버스 내부에 설치된 테마 포스터의 경우 시민들이 이동 중에도 계절의 정취와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채널은 물론 현장 안내 요원을 통한 오프라인 안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오는 26일과 27일, 5월 3일~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맞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팔복예술공장 일원 이팝나무 철길(기린대로~신복로) 약 630m 구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팔복동 철길 개방 시기에 맞춰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주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동안에는 이팝나무 철길에서 '전주 함께 장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주 이팝나무 장터'를 개최하는 등 축제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전북은행, 전주국제영화제 메인 금융기관 됐다

제26회 영화제 메인 금융기관
장기적 문화 파트너십 구축

전북은행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메인 금융기관이 됐다.

전주국제영화제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1일 전주시장실에서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정준호·민성욱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인 전주국제영화제와 대표 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전주국제영화제의 2025년 메인스폰서를 맡게 되며, 영화제 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인스폰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양측은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전북은행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화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행도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문화 지원에 더욱 힘을 쏟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전주국제영화제와 금융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가는 상생 모델이란 점에서 이번 협약이 매우 의미 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간 고사동 영화의거리 등 전주시 일원에서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폐막식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정재근 기자

전주덕진소방-현대자동차,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함께 전기차 화재 현장 대응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전기차 화재 대응 순회교육'을 21일 본서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고전압 배터리 등 특수 구조로 인해 복잡성과 위험성이 높은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기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기술 지원과 전문 강사의 참여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및 펌프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현대자동차의 최신 전기차 실물을 활용한 해체 실습이 병행됐다.

교육은 △전기차 구조 및 배터리 시스템 이해 △화재 발생 시 전기적 위험 요인 파악 △절단·진압 시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다뤘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제 차량을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특히 전기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전문교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다양한 신기술 차량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 이해 프로그램 진행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시민들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25일까지를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에티켓,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첫날인 이날 오전에는 전주시보건소에서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애 인식개선 퀴즈 풀기 △점자 스티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보건소는 이어 오는 22일과 23일에는 덕진보건소 1층 로비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또 공식 누리집(health.jeonju.go.kr)을 통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 △장애 발생 예방 5계명 △올바른 장애인 에티켓 △베리어프리(Barrier-Free) 개념 등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게재하는 등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민들께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 없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면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재활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의회-킥복싱협회,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전주시킥복싱협회(회장 김기엽)와 간담회를 갖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킥복싱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전주시킥복싱협회 김기엽 회장, 심종아 부회장, 김근배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킥복싱 전용 체육시설 확보와 전문 지도자 양성 지원, 지역 대회 운영 등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남 의장은 "앞으로도 체육인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장애인학대예방·인권보호 방안 논의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21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전주지역 21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발생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애인 학대 주요 현황과 학대 발생 사례를 공유했다. 또, 시설 운영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주시는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시설들과 소통하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중기부, 전주 글로컬 상권 창출 '주목'

오영주 중기부장관, 전주 방문
글로컬 상권 현장 간담회 참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전주시는 21일 완산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여기업 대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컬 상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전주시>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웨리단길(웨딩의거리)과 객리단길(전주객사길) 등 전주 원도심을 세계 지역화(글로컬) 명품 상권으로 육성 중인 가운데, 정부도 전주시의 우수사례에 주목했다.

전주시는 21일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워커비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여기업 대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컬 상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크립톤을 중심으로 즐거운도시연구소와 로즈파니,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상권을 웨딩거리와 객리단길 등 전주 원도심 전역으로 확장해 전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로컬 콘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이다.

전주시는 중기부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컬 상권 내 소상공인을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앵커스토어로 집중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델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대표기업인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를 비롯해 팀원기업인 무명씨네 협동조합의 이하늘 대표, 주식회사 로즈파니의 김려원 대표 등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지난 1년간 글로컬 상권으로의 변화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글로컬 상권 발전전략을 공유하는 등 전주 웨딩거리 등 원도심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지역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과 웨딩거리 일대 글로컬 상권 창출 현장을 둘러보고, 전주의 대표 원도심 상권인 웨딩거리에 있는 굿즈·향수 편집숍인 미스테리 대저택과 오래된 시계방을 개조한 복합문화공간인 금성당 등을 차례로 방문해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오래된 공간을 특색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주 글로컬 상권 창출팀은 지난해부터 로컬문화 콘텐츠의 연결과 융합을 통한 'K-라이프스타일' 글로컬 테마상권 조성을 목표로 상권 운영모델 개발 및 상권 활성화 협업을 추진하고, 예비창업가 발굴과 동네상권 컨설팅, 앵커스토어 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해 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컬 상권 육성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을 앵커스토어로 길러내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시키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심의 단계적 도시 성장전략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만이 가진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브랜드로 전환시키고, 이들이 모인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보유한 풍부한 로컬 콘텐츠에 젊은 소상공인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다면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글로컬 상권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지역 소멸과 지역 상권의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이 지역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잠재력을 가진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새만금청, 관광 활성화 사진전

3주간 새만금간척박물관서
새만금 풍경·발전상 담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2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3주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의 아름다운 풍경과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통해 새만금 관광 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산업 투자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00여 장의 사진이 전시되며 새만금의 주요 관광지와 생태 자원, 기반 및 산업시설 등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토 위에 산업단지 등 새만금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과 계절별 비경을 담은 사진들은 관광과 산업이 서로 조화로운 새만금을 확인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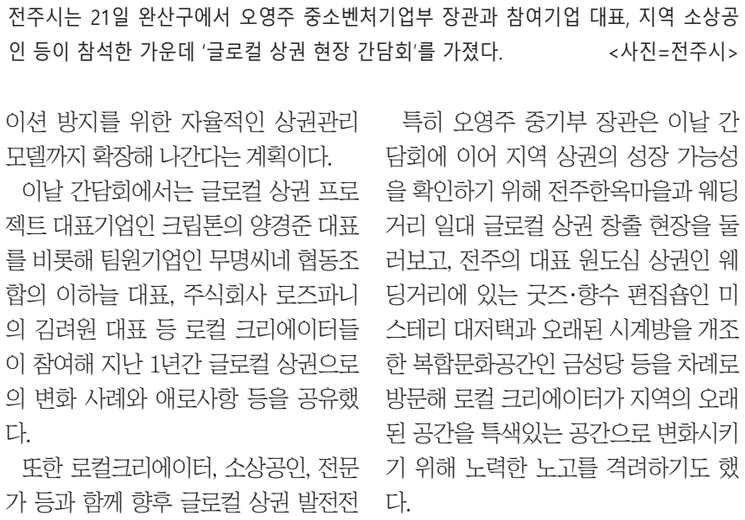
이번 사진전을 통해 새만금이 지속 가능한 관광과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및 투자자들의 시선을 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새만금의 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발전이 조화 이룬 새만금 매력을 국민과 공유하고,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公 해외 구매기업 초청 K-농기자재 알린다

K-Food+ 수출상담회 성료
국내기업 교육 등 사전 준비
996만 달러 규모 수출 달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상반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상반기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공사는 농산업 분야에 대해 110만 달러(약 15억 원) 규모의 수출을 돕는 등 수출 활성화 성과를 달성했다.

'K-Food+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수출상담회이다.

공사는 농산업 부문을 맡아, 유럽, 중동 등 해외 구매기업 10곳을 초청하고,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상담을 연계하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특히 국내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구매기업을 위한 '품목 정보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과 계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공사는 국내 농자재 기업 30곳과 함께 996만 달러(약 141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냈다.

나아가 110만 달러(약 15억 원)에 달하는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태국 구매기업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한국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확인하고, 유의미한 협의를 진행해서 만족스럽다"며 "태국에서 K-농기자재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수출상담회는 농산업 기업이 해외 유력 구매기업을 국내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상담회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산업 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내 90개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60개 사를 초청해, '하반기 농산업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은 21일 전북 완주의 ㈜원진알미늄을 방문해 제조공장 점검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조달청>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 ㈜원진알미늄 방문

브라켓 끼움 구조 단열창호
우수조달품 제조현장 점검

전북지방조달청(청장 한창훈)은 ㈜원진알미늄(전북 완주)을 방문해 제조공정 점검과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21일 가졌다.

㈜원진알미늄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유동기밀 미서기창' 및 '브라켓 끼움 구조를 적용한 단열창호' 이외 다양한 금속제창과 합성수지제창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내실있는 지역 제조기업이다.

'유동 기밀 미서기창'은 외기 유입을 차단을 위해 겹침 구조와 고기밀 모헤어 소재를 채택한 제품이다.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실내환경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다른 우수조달물품인 '브라켓 끼움 구조 단열창호'는 지진 등 외부 충격에도 유리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특허 구조를 적용해 건축물 안전성과 단열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은 "단열, 기밀, 내진 성능 등의 기술력을 고루 갖춘 창호 제품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판로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기초지자체 '전차용역' 배제 논란

로비 앞선 부실행정 논란
공공사업 신뢰 훼손 우려

전북지역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당 사업 전 단계인 '전차용역'을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불고 있다.

이는 기술보다 로비가 앞서는 부실행정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기술 역량 부족 일부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 전 단계에서 사업 기초 틀을 설계한 업체에게 정당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에 명문화돼 있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부실방지 효과 등을 이유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을 인정해왔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은 전차용역 배점을 부정한 업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해당 배점은 행정의 정당함"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성이 아닌 개인 이익 추구에 급급한 현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공공 발주 전부터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발주청 내부에 접근, 기준 변경을 유도하거나 경쟁사 배제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용역의 품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법 규정과 취지가 존중되는 행정행위가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신보 전북센터, 금융기관 교육 및 간담회

산림경영예정자 보증 교육
보증지원 성공사례 정보 공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보증센터 (센터장 김인순)는 위탁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증제도 안내 및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7일 전북보증센터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신보 전북보증센터 심사역 및 금융기관 직원 20명이 참석해 농어업인의 편리한 보증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또 보증지원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가 공유했다.

김인순 센터장은 "농어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힘써준 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롭고 책임감 있는 농신보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금속가공 소공인 35개 기업 맞춤형 지원

10인 미만 금속가공 소공인
덕진구내 선정 최대 700만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지역 내 소규모 금속가공 소공인 35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와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회장 이인호)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금속가공 소공인들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덕진구내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 중 근로자 10인 미만의 금속가공 소공인으로, 올해 총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소공인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별 최대 700만 원 내에서 △제조 현장 개선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컨설팅 등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호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회장은 "물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지역 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뿌리 역할인 금속가공 소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통과 경영 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NH농협손해보험-대성농협,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고창군 소재 대성농협에서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김영일 부사장(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문), 박윤규 조합장(대성농협), 심덕섭 군수(고창군), 이정환 본부장(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김용재 총국장(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을 통해 트랙터·분무기 등 50여 대 농기계를 수리하고 고창군 관내 농업인에게 안전용품을 전달했다.

이외 사고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행사도 펼쳤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체결한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다양한 소득 증대와 발전에 온힘을 쏟고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사고나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험료의 10~30% 정도를 지원해준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강좌 운영

4개 대학서 36개 강좌
24~29일 수강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1학기 주말 강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은 지도 교원 수급, 활동 공간 한계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전문성을 갖춘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1학기 주말 강좌에는 군산간호대, 원광보건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4개 대학이 참여해 36개 강좌에 720명의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주요 강좌로는 △군산간호대: 증강현실 인체탐험과 간호체험 △원광보건대: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체험 등 12강좌 △전주기전대: 주식투자를 통한 경제이해 등 9강좌 △전주비전대: 3차원CAD를 활용한 5축로봇설계 및 제작 등 14강좌가 있다.

수업은 내달 18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총 2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오후 10시까지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로 하면 된다.

고 1·2학년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 학생이 적으면 3학년도 포함한다. 신청 결과는 학교로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형으로, 학생의 참여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강좌명과 이수시간이 기재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서 '광고 심리학 학술대회' 개최

25·26일, 공익 위한 광고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 환경오염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소비자 광고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오는 25일과 26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강정석, 전북대 심리학과 교수)가 '공익을 위한 소비자·광고 심리학(Consumer & Advertising Psychology for Social Good)을 주제로 마련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통해서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의 '전북의 실루엣과 Only One 성장 전략', 백기태 전북대 교수(환경공학과)의 '감추어진 환경 위해: 토양지하수 오염'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비자 웰빙'과 '소비자와 소셜미디어',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 그리고 '소비자와 AI'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전북대와 동아대 BK21+사업단의 특별세션을 통해 국내 노인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특별세션에서는 지방지역 활성화를 위한 광고 전략에 대한 발제들이 이어진다.

강정석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 해결이라는 소비자·광고심리학 분야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정보진흥원, 전주국제영화제 맞아 영상제작기법 공유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세미나
네이버 등 실제 제작사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대한민국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영화인, 학생, 관객 등과 함께 첨단 촬영기법을 활용한 영상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5월 4일과 5일 이틀간 CGV 전주고사 1관과 전주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전주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선정된 전주 영화영상 실습역량 강화 도제식 프로그램에 따른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산업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세미나는 4일 CGV 전주고사에서 열리는 1차 세미나와 둘째 날인 5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2차 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첫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1차 세미나는 '버추얼, 우리가 아는 영화와 콘텐츠 속에서 찾아보기'를 주제로 버추얼 프로덕션이 생소한 대중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사례 중심의 강연이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박성제 에픽게임즈 코리아 차장과 임주영 웨스트월드 소장, 차수연 네이버 엔지니어, 안현준 모팩스튜디오 센터장 등 버추얼 프로덕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현업 종사자가 강연자로 나서 각각 △언리얼엔진이 열어가는 버추얼프로덕션 시대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바뀌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 △네이버 리얼타임엔진스튜디오 콘텐츠 제작 사례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한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공유하게 된다.

1차 세미나에는 전주시민과 영화제 관람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이어 둘째 날 낮 12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전주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진행되는 2차 세미나는 전주국제영화제 인더스트리 및 게스트 배지를 소지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전문 기술세미나로 꾸며진다.

특히 2차 세미나에서는 안현준 모팩스튜디오 센터장과 진교현 엔지니어가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한 버추얼 프로덕션 활용법'을 주제로 △버추얼 프로덕션의 이해 △창작 과정의 혁신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주제별 시연 △적용사례분석 등 총 4가지 세션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시연 중심의 기술세미나를 펼치게 된다.

/정재근 기자

전북교육청, 사회정서학습 기반 찾아가는 인성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사회정서학습(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기반 인성교육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인식 △자기조절 △의사결정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공동체 참여 등 사회정서학습 기반 6차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정서학습은 사회 및 정서적인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완성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서적인 성장과 인간관계 개선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자존감 향상에 중점을 둔다.

올해 운영 규모는 50개교(급), 1,200여 명으로 인성교육 전문강사가 희망학교(급)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조절(정서적 역량)하고,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유지(사회적 역량)하며,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확장(정신건강 역량)해 개인 또는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지역 사회 맞춤형 외국어 교육 지원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국제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주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운영되며, 학기 중에는 4주 과정, 여름방학 중에는 6주 과정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의 영어 실력과 관심사를 고려한 수준별 영어회화 강의뿐 아니라, 특별 영어회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제2차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 중이며, 신청은 전주대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주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대학교가 지역 외국어 교육의 중심 기관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1차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시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1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본청을 포함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까지 도내 모든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도교육청 국장 및 부서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천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청렴으로 신뢰받는 더 투명한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11개 분야·5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혁신',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 '청렴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가 핵심 전략이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학교 관리자의 청렴의식 함양 및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1차 교육인 지난 18일은 관내 유·초·중학교 교(원)장, 교(원)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차 교육은 오는 28일에 관내 유·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근절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교육은 자신의 일상과 업무를 돌아보며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기성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리자들은 자기성찰 보고서를 통해 스스로의 언행과 업무관행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국비 확보 세종에 베이스 캠프

정 시장 등 공무원 70명 참석 총력 대응 전략회의·부처 방문

익산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단장, 사업부서장과 실무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현재 부처 단계에서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익산시 중점사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대상은 총 439건, 1조 1,132억 원 규모로, 전년도 확보액보다 1,01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신규사업은 46건(511억 원), 계속사업은 393건(1조 621억 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사업부서의 중점사업 추진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예산 확보 실무 전략 강화를 위해 조기문 기획재정부 사무관(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팀장)을 초청해 예산 편성 흐름과 정부 부처 설득 전략, 실무자 대응법 등을 담은 특강이 이어졌다.

익산시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익산시>

전략회의에 앞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했다.

이번 부처 방문에서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과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시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부처 단계 예산 편성 과정에 맞춰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부처별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안 확정(6~8월), 국회 심의(9~12월) 단계별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중 대응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세종 전략회의는 국가예산 확보를 향한 강한 의지와 준비된 전략을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청년 녹두' 이광재 작가, 동학농민혁명 대상

5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생생한 문학으로 되살린 이광재 작가가 제15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는 지난 16일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를 열고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할 주인공으로 이광재 작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시군구·동학 관련 단체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 유족회, 관련 단체, 시의회,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들의 공적과 증빙자료를 엄격히 심사했다.

그 결과 동학농민혁명을 문학적으로 재조명하고 세대를 아우르며 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탁월한 업적을 세운 이광재 작가를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광재 작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집필위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자문위원,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학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또한 동학 관련 문학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냈다. 1989년 문예지 녹두꽃2에 단편소설 '아버지와 딸'을 발표했고, 1991년 같은 제목의 창작집을 발간했다. 이후에도 '사랑하면 할수록', '태풍의 눈', '내 가슴의 청보리밭', '폭풍이 지나간 자리'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최근에는 전봉준, 김덕명, 김개남 등 동학의 주역들이 청년 시절을 그린 소설 '청년 녹두'를 출간하며 문학계와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상자 선정 배경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세대를 초월해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시상금 2000만원이 전달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꽃향기 가득한 익산 도심 곳곳 봄꽃으로 물들다

시는 봄을 맞아 시 직영 양묘장에서 육묘한 봄꽃 40만 본을 식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육묘한 봄꽃은 팬지, 메리골드, 오스테오스펄멈, 금잔화, 베고니아 등 총 19종이다. 이달까지 공원, 유휴지, 도로변, 교통섬 등에 식재돼 시민들에게 희망찬 봄기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녹색정원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도심 정원화'를 목표로 도로변 꽃길 조성, 교통섬 정원 조성,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총 140만 본의 꽃을 공원, 학교, 유휴지, 교통섬 등 79개소에 심어 꽃향기 가득한 도심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신흥공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꽃바람정원' 행사를 개최해, 자연친화적인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 중심의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탄소중립 선도도시 정읍시, 시민참여 확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전북 시군 중 최고 점수

정읍시가 '20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에서 전북 시군 중 최고 점수를 받으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유호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열고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과 '20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1% 이상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과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53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이날 보고된 '2024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에서 시는 폭염과 집중호우, 한파 등 다양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전북 시군 중 종합점수 1위를 차지하는 값진 성과를 올렸다. 위원회에 참석한 8명의 위원들은 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정읍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정읍을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맞손'

민간 위탁 운영기관 선정·협약

군산시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끝내고,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서 새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후보를 모집했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량평가(20점) 및 정성평가(80점)를 거쳐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2025년 5월부터 2년간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경영·판로·홍보 지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찬란한 백제 밤 수놓다

5만여 명 발길 역대 최다

2025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역대 최다 방문객이 찾는 흥행을 기록하며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익산시는 지난 18~20일 3일간 백제왕궁(왕궁리유적)과 금마 일원에서 열린 '2025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에 5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백제의 밤을 여는 사람들'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마치 백제인이 된 듯한 몰입과 경험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총 50여 종의 콘텐츠는 전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체험형 야행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너른 백제왕궁 전역을 수놓은 야간조명은 방문객들에게 밤하늘 속 낭만적인 봄의 정취를 선사했다. 또한, 투명한 텐트에서 별빛을 감상하는 힐링체험 '감성 텐트'는 유료임에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행사를 백제왕궁에서 금마까지 확장해, 단일 유적 중심의 행사에서 지역 연계형 야간문화행사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 없는 야행'을 기치로 걸고, 외곽 주차장과 행사현장 간 순환버스를 운영해 만족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행은 백제왕궁의 역사성과 금마의 지역성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을 잇는 야간 문화행사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산을 일상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 디지털 아카데미 코딩·AI 교육

정읍시가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로 연결하는 '디지털 스텝업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고용 불균형과 정보격차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층을 비롯한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코딩·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부터 현장실습, 취업까지 연계하는 디지털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 활용 수준의 격차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코딩·AI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지원받고, 이후 1:1 개별 면접을 통해 초·중학교와 기관, 기업 등에 실습 강사로 파견된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교육 분야나 기업 취업까지도 연계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지반침하 사전 조사 나섰다

하수관로 공사장·멘홀 주변 등

익산시가 지반침하(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상·하수관로 주변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남중동, 신동, 모현동 등 노후관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 구도심 지역을 비롯해 △주요 도로 구간 △하수관로 대형공사장 5개소 △시내 전역의 맨홀 2만 7,000여 개소 주변 지역 등이다.

시는 대상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문제 사항 발견 시 즉각 복구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수도과 2개조, 하수도과 3개조 등 총 5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 상시 집중 점검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경 500mm 이상의 상·하수관로 구간 24km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숙지황 프로모션, 1억 3700만 원 구매 성과

작년 대비 5,000만 원 증가

정읍시가 쌍화찻집 등 지역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숙지황 프로모션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성과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시는 쌍화찻집 등 숙지황 사용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숙지황 판매소 비촉진 프로모션'이 높은 만족도와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경영체가 숙지황을 구매할 때 지출한 금액의 약 20%를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경영체의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정읍 특산물 숙지황으로 정성껏 달인 고품질 쌍화차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총 30개의 경영체가 참여해 숙지황 구매액이 지난해보다 약 5000만원 증가한 1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참여 업체들은 이번 프로모션이 정읍 숙지황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5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군산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의회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용도폐지 ▲취득 ▲사용료 감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회를 주재한 김영민 부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다자녀가정 후원사업 '눈길'

35가구·28개 기업 연계 1년간 1:1 정기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기업과 정기후원을 연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에 참여한 후원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과 김제 관내 기업을 1:1로 연결해 정기 후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자녀수와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가정에 월 1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돼, 2024년까지 총 65개 기업이 참여, 93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특히 △농업회사법인㈜농산 △연이랑수련연꽃농장 △㈜참고을 △(주)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유)금란산업개발 △(유)삼흥에코그린 △(유)삼흥산업 △(주)서주 △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 △(주)에이엠특장 김제공장 △(주)진우에스엠씨 김제지점 △다복솔식품 △제이비씨앤에스(주) △에스엠산업 △청정산업 등 15개 기업은 해마다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 나눔 문화의 든든한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이들 15개 기업에 더해 △(주)라운트리 △(주)마루이앤씨 △(주)아리울라이 △(주)반석중공업 △(주)삼정디씨피 △(유)모양산업 △(주)코팅코리아 △(주)호원이피에스 △(유)금성상공 △(주)에코광학 △(주)에이치앤비 △(주)대진엔지니어링 △(유)조원건설 등 전년에 비해 13개 업체가 새롭게 후원에 동참하며 후원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이로써 올해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해 다자녀가정 35가구에 매칭돼(7기업, 2가구 후원) 1년간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은 직접 후원업체 대표들에게 감사증서를 전달하며 "지역의 다자녀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저출산 대응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김제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다자녀가정이 매칭될 수 있도록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기업이 후원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지역 역사·문화 기록화 추진

10월까지 전북대 산학 협력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2025년 김제시 기록화 사업'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김제시 기록화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고 사진, 문서 등 소장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각 읍·면·동이 지닌 고유의 특색과 변천사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지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은 만경읍, 공덕면, 백산면 3곳으로,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찾아가는 기록물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일제강점기 문서 등 한자나 일본어로 기재된 기록물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찾아가 설명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특화자원 관광상품 지원 수혜기업 모집…5월 8일 까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 특화자원 관광상품 고도화 지원사업(2차년도)'의 수혜기업을 21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함께 지원하며, 고창군 내 식품 제조업체 및 6차산업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총 2억28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관내 관광식품 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된다.

지원 분야는 △기술지도(5건) △시험분석(5건) △효능검증(1건)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3건) △시제품 제작(5건) △온라인 마케팅(5건) △디자인 개선(9건) △패키지 지원(2건)으로, 총 8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혜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고창푸드' 공동브랜드 활용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병행해, 고창 식품 및 관광산업의 고도화와 고창 식품의 해외수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생기 연구원장은 "2024년(1차년도)년에는 14개소 기업이 수혜를 받아 40억 매출 성과를 이룬바 있다. 1차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2차년도에는 식품·관광 고도화를 목표로 최선의 지원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자매도시 대표단, 청보리밭 축제 방문

서울 관악구·경북 상주시 등 교류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고창군은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자매도시인 서울 관악구·성북구·송파구·마포구,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시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방문은 군의 공식 초청에 따른 축제 행사 교류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공식자매도시 환담회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 공무원과 자매도시 대표단이 만나 고창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며, 향후 교류 사업 활성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표단은 고창청보리밭축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만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고창군은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성북구·송파구·마포구,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시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전했다. <사진=고창군>

심덕섭 고창군수는 "바쁜 와중에도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에 참석해 주신 자매도시 대표단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고창의 맛과 멋을 느끼고, 자매도시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고위직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고창군이 21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심덕섭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고창군의회 조민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양동욱 강사(한국젠더문화연구원 원장)는 기관의 관리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및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고창군은 매년 기관장, 고위직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해왔다.

올해는 고위직 맞춤형 교육외 전직원 대상 대면 교육을 상하반기 나눠 총 2회 진행해 서로 존중하는 양성 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 성인지적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폭력 예방 및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확산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농업인 다문화가족 대상 제과제빵 체험 프로그램

고창군이 농업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 간 교류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빵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수업은 오는 28일 고창군 농업인회관 창업가공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빵의 원리와 쿠키 제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와 고창가족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제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신감을 얻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최선" 당부

일교차 심해 농작물 피해 우려 폐교 등 유휴공간 발굴 주문도

권익현 부안군수가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1일 열린 주요 간부의회에서 "최근 일교차가 크고 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상저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상저온에 대비한 보온자재 확보, 피해 우려 작물 현장 점검 등 사전 예찰과 신속한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54%보다 낮은 50%를 밑도는 수준으로 농민들의 실질적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올해부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니 재해 발생 시 경제적 손실 보상과 신속한 영농 재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에 대비해 대상 농가 파악, 지원 인력 구성, 작업 일자 조정 등 농촌 일손 돕기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최근 행정교, 공유재산, 빈집 등 유휴공간을 발굴·재구성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관광 거점 조성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일콘크리트, 부안군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전남일 ㈜전일콘크리트 대표는 지난 18일 고향 인재 육성을 위해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남일 대표는 "내 고향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하며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자녀들과 함께 기탁의 뜻을 모아 장학사업의 선순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전남일 대표는 상서면에서 수로관, 맨홀 등 친환경 콘크리트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유 쿠폰 기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백미를 기탁하는 등 평소에도 이웃돕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해 준 전남일 대표와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인재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4-H본부, 딸기 수확 등 농업 체험교육

부안군 4-H본부(회장 김오철)는 지난 19일 부안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관내 4-H 연합회 및 학생 4-H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딸기 수확 및 묘목 심기 농업체험교육을 실시했다.

4-H본부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체험교육은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고 4-H 이념인 지·덕·노·체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회원들은 지역 딸기 농가에서 수확 체험을 통해 농가의 노고를 체감하고 묘목을 식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순환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연합회 및 학생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협동심과 소통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김오철 회장은 "단순한 농업 체험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4-H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다둥이 가정 새 보금자리 선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지역기업·시민 2억1천7백여만원 모금 새집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1일, 광활면의 한 다둥이 가정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했다고 밝혔다.

아홉 남매가 살아온 낡고 비좁은 집을 대신해, 지역사회와 행정, 복지기관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 집은 '함께 만든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업은 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가 지난해 7월 4일 체결한 '깨소금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화됐다.

주거 취약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광활면 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역 기업, 병원, 단체, 개인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모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217,671,860원이 모였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36건의 기부가 이어졌고, 후원 금액은 1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다양했다.

'호룡 HR E&I'는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최대 후원자로 참여했고, '(유)금란산업개발', '가족사랑요양병원' 등 지역 주요 기관도 동참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 울타리가 돼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며 "이번 깨소금 프로젝트가 가족에게 따뜻한 선물이 됐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아동·가족 복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전북도 지적측량·드론 경진대회 '최우수'

부안군이 지난 18일 열린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임실군 성수면 소재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실시됐으며 도내 13개 시·군의 지적기사와 드론자격증을 소지한 지적직공무원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출전했다.

대회는 제한시간(150분) 내 측량장비 운용 능력, 지적측량 절차 준수 등 각종 평가요소를 심사했으며 군은 민원과 조충환 지적재조사팀장과 송민섭(시설 7급)·최선욱(시설 8급) 주무관이 출전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거뒀다.

군은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위와 1위를 기록해 지적측량과 드론 운용 능력에서 탁월함을 입증했으며 오는 5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301억 규모 중소기업 융자지원

美 관세·경기침체 대응
업체당 최대 2억 한도
5월 2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작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트럼프발(發) 관세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총 301억 원(일반지원 34억 원, 동행지원 267억 원)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며, 선정된 기업은 은행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일반지원'의 경우 최대 3% 이차보전율이 적용되고, 만기 시 일시상환한다. '동행지원'은 최대 2% 이차보전율이 적용되며, 역시 만기 시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 제조업체가 주 대상이고 계획입지 입주업체, 여성기업 등도 포함된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2일까지로 융자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류를 완주군청 경제정책과(290-3783)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완주군은 융자지원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기존 완주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계획입지 입주업체와 여성기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귀농귀촌 교육 신청 정원 두배 넘어

올해 첫 귀농귀촌 교육
25명 정원에 55명 신청

완주군에 대한 귀농귀촌 관심이 뜨겁다.

21일 완주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진행한 올해 첫 교육이 정원의 2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5명 정원이지만 무려 55명이 신청하면서 예정인원의 2배가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귀농귀촌 1번지 완주군의 명성을 입증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8일부터 3일간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귀농귀촌 정책 설명 △귀농귀촌 선도 농장 견학 △로컬푸드 직매장 및 가공센터 견학 △완주 문화탐방 △귀농귀촌 선배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2박3일 귀농귀촌 교육은 매년 4회의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wanjur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61-3731)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일차보건의료 공백 협약·순회진료로 최소화

공중보건의 수 급감으로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시가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의과대학 재학생 중 현역 군 입대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공보의 자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권고안'에 따라 도서·응급지역 우선 배치가 이어지며 내륙 중소도시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남원시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25년도 의과 공보의가 전년도 대비 2명이 감소한 상태이며, 내년에는 단 1명만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17일 남원의료원과 의료인력 협약을 체결하고 진료의사 2명을 지원받아 보건지소 진료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또한 중·장기적 인력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관리의사 2명을 직접 채용하고, 시니어의사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지원센터의 의료인력지원사업에 공모했다.

시는 또한 지난 14일부터 관내 보건지소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공보의 4명의 권역 순회 진료 체계로 지소당 최소 주 2일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협진사업도 운영해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참두릅 여행' 체험·먹거리·매출 인기 만점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운영
농가 실질 소득 증대 기여

순창의 봄을 알린 먹거리 축제'제1회 순창 참두릅 여행'이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지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알렸다. <사진=순창군>

순창의 봄을 알린 먹거리 축제 '제1회 순창 참두릅 여행'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지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알렸다.

꽃잔디, 수선화, 튤립이 만개한 생태하천 양지천을 배경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참두릅을 테마로 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축제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농협이 주관했으며, 지역 농협(동계, 서순창, 구림)과 농협군지부, 조공법인, 축협이 후원했고 30여 단체가 함께 참여해 순창의 봄나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가장 큰 인기를 끈 '참두릅 먹거리 장터'는 순창 참두릅을 활용한 산나물 비빔밥, 두릅 전, 튀김 등 다양한 향토 메뉴로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참두릅 장아찌 만들기, 쑥 개떡 만들기, 색칠하기 체험 부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연일 북적였다.

판매 실적 집계에 따르면 이번 축제 이틀간 총 9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 중 참두릅 판매액만 3,474만 원에 달하며, 지역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먹거리 부스, 체험존, 농특산물 판매도 활발히 이뤄졌으며, 우체국, 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매출이 이어졌다. 또한 친환경 축제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참두릅 증정 이벤트를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참두릅 축제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순창 참두릅 여행'은 올해 제63회 군민의 날, 구곡순담 백세인 잔치와 함께 열렸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민체육대회 군민 화합 속 성료

총 1,500여명 선수단 참여
순창읍 3회 연속 종합우승

제63회 순창군민체육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총 1,500여 명의 선수단과 내빈, 응원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읍·면 선수단 입장과 국민의례, 개회선언, 축사와 선수 선서 등이 이어지며 대회의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14개 정식 종목과 4개 시범 종목에서 각 읍·면 대표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기량을 뽐냈다. 배구, 줄넘기, 마라톤 등 전통적인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고리걸기, 한궁, 파크골프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들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사전 리허설 및 철저한 시설 점검과, 응급 의료체계및 안전요원 배치 등 전반적인 운영에서 철두철미한 준비를 보였다. 읍·면별 본부 부스 운영와 안내 책자 제작, 경품 추첨 등 세심한 행사 기획도 돋보였다.

폐회식에서는 종합 성적 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된 가운데, 선수단과 관중 모두의 박수 속에 폐회선언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경기 결과 순창읍이 3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동계면이 준우승, 유등면이 3위를 차지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올해 임업직불금 이달 30일 신청 마감

순창군은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마감일인 오는 30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임업인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순창군은 지난 3년간 △2022년 631명에게 10억 9천여만원, △2023년 629명에게 10억 8천여만원, △2024년 623명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ESG 경제대상 사회분야 전국 1위

전국 군 단위 유일 수상
ESG A등급, 사회 S등급

완주군이 '2025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에서 지난 18일 사회적책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포함됐다.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2025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에서 지난 18일 사회적책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포함됐다.

완주군이 '2025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에서 지난 18일 사회적책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포함됐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약자로,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이 고려해야할 핵심 3요소를 뜻한다.

군이 수상한 '2025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은 한국ESG평가원, ESG경제,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RSA)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것으로 지난 2년간의 전국 지자체 지표를 산출해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현재 완주군은 ESG가 주민 삶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완주군은 종합 A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사회 분야에서 S등급을 받으며 전국 1등을 달성했다.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공공복지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완주군은 지속적인 인구 상승으로 10만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테크노밸리 2산단 완판 눈앞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군은 지난해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서도 사회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ESG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 단위 지자체로 유일하게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뜻깊은 결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제95회 춘향제에 앞서 지난 19일 남원농악 고 류명철 명인의 추모 3주기를 기념하는 행사가 남원농악전수교육관에서 열렸다. <사진=남원시>

남원농악 류명철 명인 추모 진혼무 열려

3주기 추모 기념 춤·농악
남원 새 문화예술콘텐츠로

제95회 춘향제에 앞서 지난 19일 '남원농악 명인 류명철을 기리는 판, 진혼의 무(舞)'가 열렸다.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남원농악보존회(회장 김정헌, 이하 남원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남원농악 고 류명철 명인의 추모 3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회심곡, 2부 진혼의 무(舞)로 진행됐다. 남원시 노암동에 위치한 남원농악전수교육관(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오전 10시 반 고인 약력 소개, 추모사를 시작으로 경기민요의 소리꾼 홍승희 명창의 회심곡과 금파 무용단을 뿌리로 두고 있는 애미아트(Aemiarts)단의 진혼의 무(舞) 공연이 이어졌다.

아울러 추모제 이후 남원농악보존회에서 주관하는 남원농악 공개행사가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보존회 단원들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남원농악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남원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농악 동호인, 각 분야 내빈을 비롯해 남원의 봄을 찾은 관광객까지 어우러진 풍성한 한마당이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산업 안전 강화 108개소 선별 집중 점검

완주군이 21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관내 배터리 제조업체인 비나텍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발굴·해소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주축으로 건축, 전기, 소방, 산업안전, 배터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안전보안관(대표 국인숙) 등 2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설현황 보고 △현장 점검 △점검결과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비나텍은 완주군에서 수소연료전지 및 친환경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첨단 제조공정 속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각도 점검받으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비나텍 이외에도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사례 및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18개 유형, 108개소를 선별했다. 점검 유형에는 배터리 제조업체 이외에도 공동주택, 숙박시설, 전통시장, 자동차정비소, 가축농장, 교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이 포함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춘향제, 세차장도 '착한가격' 동참

7곳 세차장 가격안정 협약
고품질·친절 서비스 제공

남원시는 21일 관내 세차장 등 7개소(세차의 고수 남원점, 붕붕카센타, 자동차나라, 고속손세차장, 천일카세차장, 크린카세차장, 현카오디오세차장)와 가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도시 남원 홍보 이미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해당 세차장 및 정비소는 춘향제 기간동안 가격 인하 및 친절 서비스와 세차 품질 향상에 앞장설 예정이다.

남원시는 관내 세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배출시설 운영관리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동행 페스타'를 통해서 관내 시민들 뿐만 아니라 춘향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임시 차박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남원 홍보 이미지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3기 청년협의체 출범…청년 주도 활동 강화

남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강당에서 '제3기 남원시 청년협의체' 청년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청년협의체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선진지 벤치마킹 및 학습 △청년축제 기획 및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팀별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창의적이고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청년협의체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하며, 남원에 정착하는 청년 인구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유치원·초·중·고 32개교 친환경 쌀 25톤 공급

임실군이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쌀 공급을 시작했다.

군은'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유치원 및 초·중·고 32개교에 친환경 쌀 총 25톤을 공급한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은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지역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엄귀섭)이 관내 벼 생산 농가에서 친환경 벼를 직접 수매 후, 농협에서 도정 과정을 거친 뒤,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마크가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태구)에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한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실 지역 생산 농가의 적정가격 수매에 따른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을 제공하는 등 학교급식 내 그린푸드(Green-Food)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할 친환경 쌀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쌀을 공급하겠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들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판로 및 소비 체계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국 탁구 동호인 1천명 참여 제29회 마이산컵 탁구대회 성료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지난 19일~20일까지 개최된 '제29회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진안군체육회 주최, 진안군탁구협회 주관)'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전국 탁구 동호인 1,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단체전(5개부)과 개인전(7개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강시원탁구장, 무주반딧불이, 윤대선탁구교실, 티엘탁구클럽, 전주우리들탁구클럽이 차지했다.

개인전 우승은 양정숙, 김수현, 강준근, 정하성, 허전, 이양미, 김태영이 차지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한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 삼절 순의리 백씨 타루비 제례 봉행 뜻 기려

장수 삼절 중의 한 명인 순의리 백씨에 대한 제례가 지난 19일 천천면 장판리 타루비각에서 지역 주민, 관내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은 장수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제례봉행에 직접 참여해 타루비 제례의 역사와 뜻을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1678년 장수현감이 타고 가던 말이 꿩이 나는 소리에 놀라 벼랑 아래 깊은 물에 빠져 죽자 그를 수행하던 통인 순의리 백씨가 바위 벽에 '타루(墮淚 눈물을 흘리다)'라는 두 글자를 쓰고 스스로 몸을 던져 순절했다.

그 후 1802년 순의리 백씨의 절의를 추모하기 위해 타루비를 세웠으며 순의리 백씨는 의암 주논개, 충복 정경손과 함께 장수삼절로 추앙받고 있다.

장수군은 매년 음력 3월 22일 장수문화원(원장 한병태) 주관으로 제례 봉행을 거행해 오고 있으며, 타루비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83호이다.

최훈식 군수는 "순의리 백씨의 숭고한 절의를 기리며, 지역 아동·청소년과 함께 장수의 정신을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청년마을 조성 사업 선정

3년간 총사업비 6억 확보 산타지 마을, 접근성 등 강점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청년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6억 원을 확보(3년간)했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 문화, 주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참여해 12개 단체가 선정됐다.

'무풍면 산타지 마을'로 도전장을 냈던 무주군은 △사계절 백패킹 가능지 △주요 도시 2시간 이내 접근성 △로컬-문화예술 연결성 △공간 활용 가능성 △다층적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수용성등의 강점을 인정받았다.

산타지 마을은 오는 2027년까지 무주형 청년 정착 모델 구축, 백패킹, 트레킹,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일거리 실험, 청년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협업 과제 추진 등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청년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 <사진=무주군>

또한 자연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산골 아웃도어 청년마을 조성'을 목표로, 자연을 사랑하고 활동과 모험을 즐기는 청년 맞춤형 요소, 운영 계획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산타지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맡은 파머스에프엔에스 서선아 대표는 "산타지 마을은 사계절 백패킹을 중심으로 자연에서 살아보는 청년 마을"이라며 "살아보는 여행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의미를 확장해 '산'으로 대표성을 갖는 무주군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청년들이 힐링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옥 과장은 "무주의 자원을 청년의 시선으로 해석한 산타지 마을이 국내외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대학생 임실 투어 시작…SNS 홍보 기대

도내 대학교 선착순 접수 숙박비 할인 등 총 8회 진행

임실군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해 일정 협의를 거쳐 진행된 대학생 임실 투어가 우석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첫 일정을 지난 18일 시작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시작된 이번 임실 투어는 임실N치즈 체험과 임실치즈테마파크 투어를 연계해 임실의 맛과 멋을 오롯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형형색색 만개한 봄꽃의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배경으로 참가한 학생들 모두가 특별한 사진을 남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N치즈 체험과 치즈돈까스 시식을 통해 임실치즈의 풍미를 직접 경험했으며, 이어 옥정호로 이동해 꽃내음이 나기 시작하는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해 특별히 운영되는 전북 도내 대학생 임실 투어는 올해 상·하반기 각 4회씩 총 8회에 거쳐 진행된다.

투어 일정 협의를 통해 확정된 대학교 재학생들이 차례로 임실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대학생들 간의 활발한 SNS 사진 공유를 통해 임실군의 온라인 홍보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임실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인력 교류 넘어 상호발전 도모" 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장수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및 관계자들이 장수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선발·도입해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체류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 체결로 장수군 농가들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라오스 근로자들도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 및 교육 △출·입국 절차 지원 △양국 간 근로자의 체류 기간 중 법 준수와 권익 보호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다.

군은 베트남 남딘성과도 지난달 서면 협약을 통해 협약서를 상호 교환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두 국가와의 협약 체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농가의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국제 업무협약은 인력 교류를 넘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며 "협약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 군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통합복지카드 현장 점검

전춘성 진안군수가 통합복지카드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전 군수는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를 차례로 탑승하며 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세밀히 살폈다.

전 군수는 진안버스터미널에서 마령면 방면 농어촌버스를 타고 마령초등학교에서 하차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행복콜버스로 환승해 승하차 및 카드 인식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안전환경국장과 교통행정팀 등 관련 실무진도 함께 했다.

현장에서 전 군수는 "군민들이 복지 혜택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스템 오류나 불편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통합복지카드는 진안군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카드에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월 24회), 행복콜버스(택시), 교통소외지역 콜택시, 목욕탕 이용 혜택 등이 담겼다. 이·미용권 등도 향후 카드에 통합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 군수는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은 군민 체감에서 시작된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일윤 임실군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패

장애인 권익 보호 앞장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지난 18일 군민회관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임실군 장애인연합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으로 장애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 의원은 평소에도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히 소통하고,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제33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안전성을 확보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으며,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치료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비를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주기보다는 함께 비를 맞으라는 말이 있다"면서, "곁에 있었을 뿐인데 부족한 제게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무주군이 오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무주군은 현재까지 3백4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인구 확보 등에 중점을 둔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청년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6년도 투자는 '22년~'25년 기금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 사업 집행 상황을 확인해 계획 수립 및 추진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지난 11일과 18일 관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금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 점검,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운영 준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주군은 중점사업을 발굴해 추진을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부지확보 및 사전절차 이행 철저, 정주 체류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병행 설계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송미령 장관,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장 방문

진안군은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와 농업근로자 숙소를 직접 살펴보고, 우수 사례로 평가받는 진안군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인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 4년째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기관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합법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근로자 지원사업 덕분에 농촌의 인력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행복한 농촌, 잘사는 농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지구의 날 맞아 '관내 소등 행사' 추진

장수군은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내 소등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기념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시민 주도형 환경운동이다.

이번 소등 행사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주간'의 일환으로 '해보자고 기후 행동! 가보자고 적응 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단위의 홍보와 캠페인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소등 행사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되며 가정과 공공기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건물 내 전등,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꺼두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장수군민 모두가 본 행사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작은 실천이 모여 기후 위기 극복의 큰 힘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전북도립미술관, 대아스페이스 기획전 '작별의식'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은 지난 3월 27일부터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원 내 숲문화마루 전시실(이하 'JMA 대아스페이스')에서 기획전시 '작별의식'을 개최하여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한다.

JMA 대아스페이스 세 번째 기획전시 '작별의식'은 회화와 오브제의 결합을 통해 과거의 사건과 현재를 (재-)매개하고, 이를 통해 상실과 애도의 감각을 공유하는 송수미(1965~) 작가가 참여한다.

/정재근 기자

진남덕 씨 아들과의 약속 실현 예수병원에 1억 기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 어려운 아이들 위해"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진남덕(70대 김제) 환우가 예수병원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하며 따듯한 감동을 전했다.

진남덕씨는 "40년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내며 아들과 병원에 약속했다"며 "여유가 없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진씨는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다.

진 씨는 이후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도 용서했다.

발전기금 1억 원은, 40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당시 치료에 전념을 다해준 예수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한 것이다.

진남덕씨는 "예수병원이 참 좋아요. 지금처럼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바랄 건 없고 지금처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소 지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동충동지사협,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재능기부

남원시 동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차남, 조태봉)는 지난 18일, 관내 만 7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지원사업 '영원한 미소'를 추진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생을 기념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이번 촬영은 동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숲 문화예술단체(대표 김회철)의 이·미용 재능기부와 남원시 화인당의 한복과 촬영 공간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이재민 지원에 전직원 참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최근 전국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큰 성금을 마련했다.

전북대병원은 직원들 참여로 마련된 성금 1737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21일 전달했다.

전북대병원 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진행하며 직원 1,317명 참여 총 1,737만원을 모금했다.

전북대병원 직원들의 이웃 사랑 실천으로 모인 소중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을 긴급지원하고 구호현장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군산 옥산농협 농가 주부 모임, 청암산·옥산면 환경정비

군산시 옥산농협 농가 주부 모임(회장 박순녀)이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암산 및 옥산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지역주민과 청암산 등산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마을 경관을 선사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됐다.

지난 18일 정비엔 옥산농협 농가 주부 모임 회원들, 옥산면, 옥산농협 직원들이 참여했다. 청암산 등산로와 수변로 및 옥산면 내 도로변 등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5월 역사·문화체험 풍성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이 오는 5월 백제시대로 떠나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백제왕궁박물관은 5월 한 달 동안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일원에서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사업 '뮤지엄·즐기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4월 21일부터 백제왕궁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산불 피해지역 농작업 지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지역 농작업 지원 활동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도왔다.

이번 지원 활동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산불 피해 지역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참여 기관으로 나서 도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했다.

이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청송군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지원 기간 동안 남원시 직원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논 밭 경운, 파종 준비 등 주요 영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농기계 운용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농작업 대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지원받은 지역 주민들은 "큰 위로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흥남동, 저장강박증 홀몸 가구 쓰레기 청소

군산시 흥남동행정복지센터는 다량의 쓰레기가 쌓인 저장강박증이 있는 홀몸 가구를 위해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실시됐던 저장강박증 가구 청소는 군산시의 한 소상공인위원회 등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집 안팎의 불필요한 생활용품과 30톤 분량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청소와 방역을 진행하는 등 깨끗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청소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였던 주거 공간이 편안한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기쁘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최선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신재식 흥남동장은 "큰 도움을 주신 봉사단체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허상석 (유)남양산업 대표, 무주군에 장학금 2백만 원 기탁

지난 21일 (유)남양산업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허상석 대표는 "무주에 터를 잡아 무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며 "그 실천이 무주군 꿈나무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사)정읍시 중화요리연합회, 정읍 이평면 어르신 짜장면 대접

정읍시 이평면이 21일 지역 어르신 400여 명에게 따뜻한 짜장면을 대접하며 정이 넘치는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이번 봉사는 이평면이장단이 주관하고 (사)정읍시 중화요리연합회(회장 노홍래)의 후원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앞 주차장에서 진행된 행사는 이장단과 새마을부녀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짜장면 배식 봉사에 나섰다.

/정읍=김정인 기자

〈一事一言〉

한덕수, 대한민국 모든 부가 미국 덕분이라고?

김관춘
논설위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국정을 맡은 권한대행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된 적 없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책임감 있는 최고위 공직자가 보여야 할 언행과 태도와는 거리가 먼, 오락가락한 행보와 정치적 저울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는 불응했던 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추경안을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국정 책임자로서 신뢰를 얻기엔 이미 늦었다. 본인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정치적 셈법이 그 누구보다 깊숙이 내재돼 있는 듯한 모습이 훤히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직의 최고위 공직자가 정작 자신은 대선 출마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선출된 대통령처럼 국정을 운용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인가?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효력 정지시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헌재의 제동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현상 유지'에만 그쳐야 할 한 대행의 권한 남용과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잠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헌법기관의 견제에 귀를 닫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국정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사적 욕망의 연장선일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 갈등 속에 '관세 전쟁'이라는 통상 압력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물가, 부동산, 고용 등 민생 문제로 국민 삶이 위태롭다. 이런 위기 속에서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신중하게 국정을 책임지는 현상유지적 '관리자'에 그쳐야지, 정치 무대에 올라설 기회를 노리는 '주연 배우'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

한 대행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트럼프가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봤다"며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트럼프와 통화했을 당시 같은 질문을 받았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이 발언은 명백한 정치적 계산의 흔적을 드러낸 것이다. 국가를 대표해 외국 정상과 나눈 대화의 성격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은, 최고위 공직자의 중립성과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다.

더구나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른바 '대선 차출론'에 대해 한 대행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출마할 뜻이 없다"는 단호한 불출마 선언은커녕, 가능성을 열어두고 애매한 태도나 노코멘트로 일관해 왔다. 이는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여론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5월 4일, 공직자의 대선 출마 사퇴 시한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주도하는 주요 외교·경제 현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국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가의 이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나서는 일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한 대행은 특히 최근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체결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우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부는 미국 덕분이라는 친미 사대주의자이고, 한미통상 협의에서는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는 저자세를 보여 국민을 경악시켰다. 그러니 윤석열 이후 최대 리스크가 한덕수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한 대행의 그간 행보는 이 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다. 지금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묻는다. 정말로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며 국정에 임하려 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왜 아직도 대선 불출마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가?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의 중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신이 어떻게 과도기 국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은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정치적 도약의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한덕수 대행의 얍삽한 술수를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한 대행이 만약 대선 출마의 뜻이 있다면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

반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에 전념할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오직 과도기 국정 관리자로서의 소임에만 집중하라. 공직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봉사의 자리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잊음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역사 이를 명징하게 증명하고 있다.

사 설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 국가 정책화해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두고,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총 65조 2천억 원 규모의 9대 아젠다와 74개 전략사업이 담긴 이 메가비전은 단순한 지역 공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기획형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정치권에 단순히 건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제시한 아젠다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모음이 아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균형발전 구상, K-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구축, 새만금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등은 모두 국가 단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는 전북이 주변부가 아니라 국가 성장 모델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전북이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점은 향후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한 초광역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인접한 광역지자체와 연계한 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SOC·산업·문화 인프라로 확장함으로써 대한민국형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을 넘어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전북은 산업 구조의 한계, 교통망 부족, 서울 등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자원배분 정책 등으로 인해 내륙 속에 '변방'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식을 과감하게 전환할 때다. 전북이 스스로 제안한 이번 메가비전은 미래 산업, 생태경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수많은 지역 공약 중에서도 전북의 메가비전은 실현 가능성과 국가전략 성과를 모두 갖춘 기획형 공약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과 대선 캠프는 전북의 제안을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닌,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제안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북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아젠다별 전략 수립과 정치권 설득을 지속하고,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재정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중앙부처는 이러한 지역의 선제적 제안에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화답해야 한다.

전북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 모델은 곧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전북이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서 낙후된 전북발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시

함께 있는 때 / 이외수

세상에 神의
사랑 가득한 줄은
풀을 보고 알 것인가
꽃을 보고 알 것인가

눈을 감아라
보이리니

척박한 땅에
자라난
그대 스스로
한 그루 나무

실낱같은 뿌리에
또 뿌리의 끝

하나님의 눈은
보이지 않고
다만 존재할 뿐

사람이여
정답다 우리
함께 있는 때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1964년 춘천교대에 입학했다 군 제대 후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꿈꾸는 식물' '겨울나기', 장편 '들개', '칼', '산목',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 에세이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등을 간행했다. 1990년 '4인의 에로틱 아트전', 1994년 선화(仙畵)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화가로도 활동했다. 소설 '훈장'과 '꿈꾸는 식물', 시집으로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악하악' 등이 있다.

문화재열전

경주김씨 보판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목판본, 사간본
-지정일 - 1998년 11월 27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남원시 시청로 57 (향교동)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정재근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산책로 2km 꽃잔디·수선화 물결
지난 18~19일 참두릅여행 축제
올 하반기 경천 산책로변 정비

한강의 기적을 보듯, 순창의 기적을 양지천에서

지난해 순창읍 양지천변을 따라 심어놓은 꽃잔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곱게 물들어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수선화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의 민선 8기 5대 역점사업 중 첫 번째로 꼽는 '경천 양지천의 수변개발사업'은 경천과 양지천 일대에 총 사업비 175억여원을 투입해 순창군민의 친수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특히 양지천 산책로 약 2km 구간에 꽃잔디와 수선화, 튤립 약 70만 본이 활짝 피어나, 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해도 화려하게 피어난 꽃잔디로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몇 십 년간 보지 못했던 광경이라 군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았다. 올해도 화려한 꽃잔디에 노란 수선화까지 피어나며 봄의 정취가 더욱 느껴지고 있다.

참두릅 축제까지 열리며 더 각광받는 장소로 거듭나

'순창 참두릅여행' 행사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순창 양지천 일원에서 열렸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농협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명품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는 양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하고, 순창의 대표 농산물인 참두릅과 봄나물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지난해 꽃잔디로 큰 사랑을 받았던 양지천 일대에서 천변 양쪽으로 30여 개 부스를 설치하고 두릅과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판매 실적 집계에 따르면 이번 축제 이틀간 총 9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중 참두릅 판매액만 3,474만 원에 달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

지난해 양지천에서 이제는 경천으로

지난해 양지천을 정비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경천 산책로변 꽃길 조성, 경천·양지천 합류부 공원 조성, 음악분수대 설치 등 다양한 경관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내년에는 경천변 산책로를 따라 수선화가 멋들어지게 피어나고 천변 경사면을 따라 꽃잔디도 양지천과 같이 예쁘게 피어날 예정이다.

경천과 양지천의 합류부에는 바닥분수와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버스킹이나 음악공연 등으로 군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민과 군이 함께하는 공동협력사업으로 성장!!

지난해 4월 민관이 함께하는 양지천 가꾸기 사업에 지금까지 41개 사회단체, 1,386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3년 가을 식재했던 꽃잔디가 그 다음 해인 2024년 봄에 화려하게 피어나자 이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꽃잔디 가꾸기에 동참의사를 군에 전달했다.

참여 의사를 전한 사회단체에게 구역을 나눠 경천변 꽃잔디를 가꾸기 시작하자 더 많은 사회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금까지 41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각자 경천변 가꾸기에 열심히 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식목일 기념행사로 경천 가꾸기에 동참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달 28일 순창읍 경천변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로 경천변 일대 곳곳에 잔디를 식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순창군의회, 산림조합, 지역 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했으며, 경천변에 모인 참가자들은 잔디 식재와 함께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무엇보다 사회단체에서 소속 군민 300여 명이 함께하며 경천이 군민과 함께 가꾸는 천변으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순창=박지헌 기자

인터뷰 *최영일 순창군수*

"내년 경천에 꽃잔디·수선화 가득"

"경천과 양지천은 순창읍을 가로지르는 대표 하천으로 서울의 한강과 같이 저녁이면 군민들이 나와 산책하고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친수공간입니다."

"지난해 화려하게 폈던 꽃잔디에, 올해는 수선화까지 더해지면서 봄내음이 그 어느때보다 향기롭다"면서 "올해도 군민들이 순창을 떠나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 봄 향기를 물씬 느끼실 수 있도록 양지천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더 특별하게 양지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순창의 대표특산품인 참두릅을 도시민과 군민이 마음껏 먹고, 체험활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순창 참두릅 여행 축제도 준비했다"면서 "양지천의 아름다움과 함께 신선한 참두릅도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천도 올해 하천 정비로 인해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했다"면서 "내년이면 경천도 양지천처럼 꽃잔디와 수선화로 꽃내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하천으로 변화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덧붙였다.